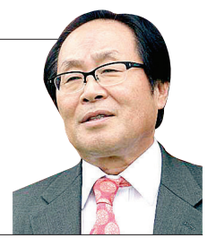
현불 논단

자기가축화 넘어야 살아남는다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브라이언 헤어 주장한 '자기가축화'
스스로 가축화해 공감, 협력이끌어
인간 공동체성, 자기가축화 결과물

이를통해 번영했으나 부작용 존재
'우리 집단' 관대 하나 반대파 배척
韓사회 팬덤서 자기가축화 나타나

자기가축화 넘기 위해 '자비' 필요
공감 등으로 만든 자비의 옷 입자

개의 세상이 된 것 같다. 주변을 보면 개와 관련된 이야기가 풍성하다. 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대표적인 수식어로 사용된 시절이 있었다. '개만도 못한 놈' '개판 세상' . 그러나 지금은 개를 '개새끼' 라고 부르면 폭력적 인격의 소유자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생명체는 상호의존적이라는 연기론의 틀에서 보면 자연적이고 바람직하다. 논쟁거리는 좀 있지만.

필자는 자비 실천윤리에 관한 책을 쓰면서, 자료를 탐색하는 와중에 개의 세상이 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진화인류학자 브라이언 헤어(Brian Hare)는 그의 저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Survival of the Friendliest)〉에서 '자기가축화(self-domestication)' 라는 이론을 내세운다. 자기가축화의 가설에 의하면 현생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 가축화됐다는 것이다. 다정함과 친화력, 공감과 협력, 호기심과 놀이 등 인간의 특징은 인간 정신 가축화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인간의 사회성과 공동체성이 자기가축화의 결과물인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인보다 열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자가 된 것도 자기가축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개는 인간에게 스스로 가축화된 독특한 종이라는 것이다. 사실 개는 늑대와 같은 종이다. 스스로 가축화의 길을 택한 개는 번영의 길을 맞이하고 있지만, 가축화를 거부한 늑대는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간이 지니는 잔인성과 폭력성이 가축화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자기가축화의 범주 안에 있는 구성원에게는 따뜻한 배려와 공감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집단' 외에는 열등하고 사악한 늑대 무리라고 여기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인류의 비극은 다른 집단과 종에 대한 혐오와 폭력에서 나온 것이 태반이다. 인간은 자기가축화를 통해 지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종이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끔찍하고 해악한 존재가 되고 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지구별이 '자기가축화' 된 인간에 의해 파멸되어 가고 있고 타인을 비인간화하는 수사가 넘친다.

이렇게 자기가축화가 현생 인류를 번성케 한 큰 원인이지만 이제 이것이 지구촌에 큰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비이다. 자비는 중생의 고통과 비애에 대한 다면적인 반응에서 출발한다. 자비는 공감 · 동감 · 친절 · 용기 · 인내 · 평정 등 다양한 실로 짜인 옷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비라는 옷의 실에는 자기가축화가 가져온 인간 덕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덕목이 오늘날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비수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비심의 방사(放射)이다. 방사는 자비심의 대상과 그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이다. 즉, 자비를 보편화하는 것이다. 친한 사람, 친한 집단, 친한 종에게 한정되는 미덕은 다른 사람, 집단, 종에게는 큰 악덕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다.

지금 한국사회는 팬덤(Fandom)이라는 용어가 문화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의미인데 여기서도 자기가축화 현상이 지니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팬덤 현상은 생산적인 측면이 많은 문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기 민망할 정도의 미움과 혐오의 용어가 처처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다. 현생 인류를 번성케 한 자기가축화, 이제 이의 벽을 뛰어넘어야 지구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자비의 길이다. 〈자비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감한다.

전 우주를, 그 높은 곳, 그 깊은 곳, 그 넓은 곳/ 끝까지 모두를 감싸는 사랑의 미음을 키워라./ 마음도 적의도 넘어선/ 잔잔한 그 사랑을

社 說

비구니 원력, 한국불교 난제 풀까

조계종과 선학원 간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고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재단법인 선학원이 조계종 탈종단화 수순을 가속화하면서 선학원 소속 조계종 스님들의 이중고도 커지고 있다.

선학원은 소속 분원 조계종 스님들에게 '이중승적' 을 이유로 사실상의 탈종을 종용하고 있고, 조계종 역시 '법인법' 에 따라 미등록 분원 소속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려로서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조계종 승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단에 등록된 사찰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사찰 운영을 위한 창건주 · 분원장으로서 소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단 승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비구니회가 "더이상 비구니 스님들의 고충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 기인한다. 조계종과 선학원 간 갈등구도 속에서 불필요한 피해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해결방안을 직접 모색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수행환경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전국비구니회의 결단과 실행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변화의 카드는 조계종과 선학원 양측에서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비구니회는 그럼에도 양측을 움직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호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선학원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비구니사찰의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 결집이 선학원 문제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MZ세대 맞는 법당 조성 힘써야

고즈넉한 산사는 어른들에게는 사유와 사색, 성찰의 장소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좀 다르다. 일주문에 서 있는 험상궂은 사천왕상부터 오방색의 사찰 문양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낯설고 무섭다. 법당을 낯설어 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불교는 진입 장벽이 높은 어른들의 종교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종립학교 법당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 방식을 재현하기보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법당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산하 학교 법당 리모델링 프로젝트' 는 동국대 부속 초 · 중 · 고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스님이 미래불자 양성을 위한 포교 공간인 산하학교 법당을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지난 4월 29일에는 은석초등학교가 7월 11일에는 동국대부속여자고등학교가 리모델링한 새로운 법당을 공개했다. 두 법당 모두 초등학생과 여고생들의 눈높이와 감성에 맞춰 새롭게 조성됐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다른 종립학교에서 견학을 올 정도라고 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최근 유행하는 미디어 아트를 동국대부속여자중학교 법당에 도입할 예정. '상 · 상법당' 이라고 명명된 동국대부속여자중학교 법당은 기존 불상 뒤에 자리하고 있던 전통 형식의 탱화 대신 고해상도 LED 스크린을 설치해 미디어 영상작품들이 상영되도록 제작된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진 불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맞는 법당부터 조성해야 한다. 법당에서 뛰놀고, 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시작이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꾀꼬리 오름과 보문사지

섬은 돌과 바람과 물이다.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 제주는 바람과 돌은 많은데 물이 귀하다. 그러기에 물이 있는 곳에는 옛 절터가 많다. 물이 몸의 생명이라면 믿음은 마음의 생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절에서 흐르는 물을 약수 혹은 죽지 않는 생명의 물이라 하여 감로수라고 한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오름이 시작되는 것구리(꾀꼬리)오름 기슭에 용수량이 제법 되는 샘이 흐르고 있는데 원물(院泉) 또는 절세미(寺泉)이라 한다. 그 이름은 보문사가 있었던 터이기에 붙여진 것이다.

보문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이원진의 〈탐라지〉에 제주목의 여러 사찰과 함께 기록돼 있다. 이곳 사지에서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의 도자기류를 비롯해 어골문 계열의 복합문 기와가 고루 확인된다. 최근까지 기단석과 정초석들도 한군데 쌓여 있었지만, 현재 모두 유실되었다. 조선 시대의 보문사는 옛 제주목과 정의현을 오가는 길에 설치되어 동원(東院) 역할을 담당했는데, 절 주변을 김상헌의 〈남사록〉에서는 보문동, 〈탐라도〉에서는 보문촌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고려 혜일 선사의 시가 전해 온다.

절은 초라하니 거친 지경에 의지했으나(寺僻依荒徼)/샘물은 달디다니 꿈속에서 얻었네(泉甘得夢中)/ 연꽃 도량이 수승한 일을 맞았으니(蓮場逢勝事)/ 불법의 유풍이 이어졌음이라(佛隴嗣遺風)/ 풀은 서리를 맞고도 그대로 푸르른데(草過霜仍綠)/ 담쟁이는 풍토병 때문인지 붉지 않구나(蘿因瘴未紅)/ 원통문이 스스로 열린 이곳에(圓通門自啓)/멀리 기러기가 넓은 하늘에서 울고 있어라(遠鴈叫長空)

혜일 선사는 고려 충렬왕 무렵인 1275년에서 1308년 사이에 제주를 노래한 최초의 인물로 시승이라 불린다. 선사는 전남 강진 백련사에서 백련결사운동을 전개한 원묘요세, 천인, 원완의 뜻을 이은 인물이다. 또한 선사는 몽고침략기 저항을 주도하였던 삼별초와 뜻을 함께하여 완도로 유배 온 이영의 숙부이기도 하다. 이때 완도 법화사를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사의 시는 전쟁의 광풍이 휩쓸고 간 탐라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 이때 원의 원종(1273)은 삼별초 항쟁을 진압한 뒤 그 잔군 토벌과 항복민을 다스리기 위해 초토사를 두어 직접 관리를 파견했다. 원은 그 이전부터 탐라를 일본과 남송의 정벌을 위한 전초기지로 여기고 있다가, 삼별초의 항쟁을 계기로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고 초토사를 설치한 것이다. 이후 제주는 약 100년간 원의 직접적인 지배 속에 있게 되는 탐라총관부가 설치됐다.

탐라국은 동북아 전쟁이 몰아치는 전초기지였다. 혜일 선사는 그 광풍의 길목에서 작고 거친 오름 하나 기대고 있던 사찰 보문사를 노래하고 있다. 그곳은 탐라의 고단한 역사 속에서 도민들에게 달디단 생명의 샘물로 목을 축이고, 고해에 피어난 연꽃과 같이 삶에 위안이 되었던 사찰이었다. 그 시절 선사에게 저 오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 울음은 자비 관음을 염송하는 목탁 소리와 다름없었을 것이다.

〈제주 선래왓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